

〈대담〉

## 청리 최종고 교수 정년기념대담

일 시 : 2013. 2. 26. (화) 15:00~20:00

장 소 : 서암관 유기천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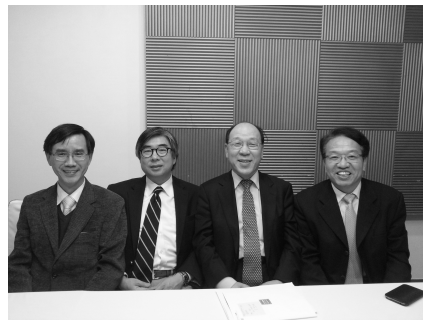
대 담 자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궁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취·정리 :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 〈근황과 지금까지의 저술〉

**한인섭** : 정년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최종고 교수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학문과 삶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정년을 맞이하셨는데 더 건강해 지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최종고** : 내가 봐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른 특별한 운동을 안 하고 매일 아침 등산체조를 하고 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매일 9시까지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아침 6시 반에 근

처 우면산 자락에서 동네 주민들과 40분간 이른바 기체조를 하고, 집에 와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학교에 출근하는 생활을 9년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운동은 안 해요.

**한인섭** : 맞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오히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최종고** : 전에는 연구실에 있다가 퇴근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피곤했는데, 요즘 이 정도의 운동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피곤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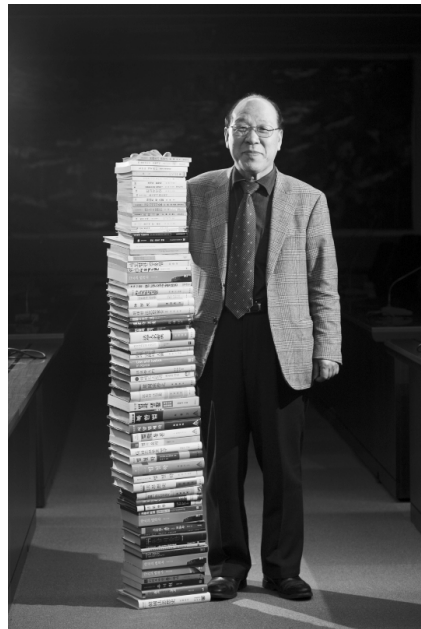
**한인섭** : 9년 전에 운동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최종고** : 주변에서는 골프를 하라고 하라고 권했는데, 우연히 아침 산책을 올라갔다가 주민들이 기공체조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함께 하게 됐어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 많고,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인섭** : 저희들이 최종고 선생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 중 하나가 책을 얼마만큼 쓰셨을까, 책을 쌓아놓으면 키의 높이를 넘었을까 궁금합니다.

**최종고** : 그 의문점에 대하여는 말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지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단행본만을 모은 것인데, 정공식 교수가 지금까지 쓴 책의 서문만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한 법학자의 학문세계』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민속원 출판에서 와서 사진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70여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진만 있으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웃음)

**한인섭** : 네, 아주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진입니다. 책 표지로 해도 좋겠습니다.



**최종고** : 아마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책을 옆으로 놓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책을 쌓아놓으니 넘어갈까봐 손에 힘을 꼭 주고 있었어요. (웃음) 5년 전 회갑 때도 이런 식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 그 때 어깨까지 오던 높이가 이번엔 귀밑에 이르니 노년에도 계속했던 표시이겠지요.

**한인섭** : 최근까지도 컴퓨터보다는 손글씨로 저술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은 원고지로 글을 쓰시다가 컴퓨터로 넘어가신 세대일 텐데, 언제부터 컴퓨터로 집필을 하시게 되셨나요?

**최종고**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 **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일이었는데, 이제 글 **치는** 시대로 바뀌니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시대에 뒤지는 것 같고, 유흥준 교수가 서울대에 와서 강연할 때, 본인은 만년필로 계속 글을 쓰겠다고 해서 위로도 받고 그랬지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속도는 늦지만 기본적인 컴퓨터링만 따라올 수 있었고, 영문저술의 경우 바로 교정(proof-reading)을 받을 수 있으니깐 책 저술할 때 정말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한인섭** : 그 동안 원고지는 한 가지 원고지 종류만 쓰셨나요?

**최종고** : 예전에는 출판사 전용 원고용지도 있었고, 법대에서도 전용 원고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연구실 정리하면서 원고지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역사관에 보존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학생도 교수도 원고지가 뭔지 모르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것보다도 지형(紙型)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서울대 석사 논문을 정식 인쇄한 최초의 사람인데, 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형을 역사관에 보내려고 해요.

**한인섭** :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면서 보람도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글 쓰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고통이십니까?

**최종고** : 초기에는 우연인지 몰라도 책 한권을 내면 좀 앓았어요. 당시에는 죽기 살기로 글을 썼던 것이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습관화되니깐 적어도 40년 정도 저술을 계속하다보니 그런 것이 둔감해지고, 책을 하나 내도 그렇게 감흥도 없고, 남들이 몇 권이나 썼냐고 물으면, 정확히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이번에 저서를 정리해 보니 70여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저, 편저, 번역 등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류도 있으니까요.

**김창록** : 제가 조교할 당시 교정봐드릴 때, 책 한권 끝내면 몸살이 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동시에 여러 권을 편집했던 적도 있고요.

**최종고** : 80년대에 20여권 냈던 적이 제일 왕성했던 것 같고, 90년대 초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감사편지를 받았는데, 책이 다 납본이 되니깐 한국에서 사회과학자 중에서 가장 저술이 많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 잘 나갔죠. 양적으로도 많이 쓰고, 또 그 때는 법학이 교과서 중심의 학문이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도전정신이라고 할까, 내가 기초법학, 법사상사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니깐, 교과서 아닌 연구서를 많이 내야겠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는 법학교양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 책이 많아졌어요. 물론 내 책 중에는 연구서 외에도 작은 문고판 교양서들도 있다 보니 종류가 많아진 것이지요. 시대에 따라서 기분도 꼭 같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출생과 가계〉

**한인섭** : 선생님, 글쓰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선생님 호가 ‘청리(靑里)’시던데요. 청리에 살던 어린 시절 이미 글쓰기에 입문하신 것 같은데요.

**최종고** : ‘청리’는 내 고향 면(面) 이름인데, 내 고향은 경북 상주군 청리면 수상리(水上里)라고 정말 물위 마을이라 앞에는 낙동강 지류가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회 졸업생인데, 당시 어린이 글짓기를 처음 시도하신 신현득 선생님이라고, 나중에는 윤석중 선생님의 뒤를 이어 새싹회 회장도 지내시고, 금년이 팔순으로 지금도 계속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 상주에서 감 장사 하는 얘기, 동네 아낙네들이 감을 삭혀서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니깐, 서울에 있는 심사위원들의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였나 봐요. 이런 일로 글과 친해지게 되었죠. 글을 왜 쓰냐고 물으면, 흔히 얘기하듯이 글 쓰는 것은 마치 호흡과 같아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계속 말도 하고 글도 쓰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한인섭** :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셨군요.

**최종고** : 신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인물전기학회에도 가끔 모시고 올 정도로 존경하는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진짜 교육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창록** : 고향이나 가게와 출생 관련하여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최종고** : 상주는 유교전통이 강한 고장인데, 우리 집은 조부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유학의 전통과 단절됐어요. 예를 들면 제사도 안 지내고, 가족으로부터의 연(緣)에 얽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같아요. 학자로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내 시간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는 점과도 연결되지요.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였는데, 조부님은 상당히 신식으로 사고하신 어른이셨어요. 왜 그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냐 하면 술을 아주 좋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술을 안 마시게 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금주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나중에 내 학문 연구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법사상에 관심이 생기는데, 내가 유학에 대해서 너무 단절되다 시피해서 거의 모른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이 되었어요. 돌아가신 함병춘 박사도 그런 예이셨지요.

우리 가게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 때 조선에 없는 아들이다 해서 애지중지 키우셔서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 영문학을 하시고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집도 가난하고 해서 군을 자원입대해서 육군보병학교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6·25 나는 날 서울에서 고향친구와 같이 남산에서 산책하시던 중 귀대명령이 나서 부대에 복귀하신 후 소식이 없어요. 전사자로 처리되어서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원호장학금을 받았어요. 당시 내가 세 살이었고,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나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 가게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잘 몰라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조부님이 교회 장로로서 가장 어른이셨고, 우리 집에서부터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가곤 했어요. 근데 목사도 없는 교회라,

시무장로라고 설교 담당하는 젊은 장로가 있었는데, 그 분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설교도 가끔 부탁하곤 했어요. 그렇게 기독교 집안이지만, 할아버지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궁궁을(弓弓乙)’이니 하는 등 동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시다가 내가 보면 감추시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경주 최씨지만, 족보에 대하여도 할아버지께서는 불신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계에 대한 의문도 많았고, 다만 동학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정도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선산의 지씨인데,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야무지고 똑똑하신, 수(數)에 밝으시고 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감성적이신 아버지 쪽을 닮지 않았나 생각해요.

**김창록** : 그렇다면 조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최종고** : 그렇죠. 할아버지는 항상 “경위 발라야 한다” 해서, 나는 좌우명으로 사리를 바르게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정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이니깐 사랑과 자비 같은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이 가계적으로 내려온 교훈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법학자로서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이비’ 같은 태도가 이런 면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김창록** : 당시에 상주에서 제사 안 모신다는 것은 분위기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지요?

**최종고** : 하도 보수적인 교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을에 좀 예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머슴들의 경우에도 교회 나가면 서울 가서 돈 안내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오십 명 정도나 돼요. 마을이 한 백여 호 되는데요. 몇 집만 제사를 안 지낸다면 좀 문제가 됐겠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기독교가 세력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삿밥을 가져다주면 난처하기도 했어요. 먹고는 설사를 했지요. 절에 소풍 가면 절 냄새가 역겨워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김천 직지사예 소풍가서 어느 스님이 얘기를 걸어오셔서 중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불교공포증을 불식하게 되었어요. 나중 알고 보니 그 스님이 후일 동국대 이사장까지 지낸 유명한 오록원 스님이셨어요.

**이철우** : 아까 동학과의 관련성은 단지 그냥 느끼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최종고** : 그 이상은 없어요.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향 상주에 동학교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전봉준 이하 손병희 류의 천도교 라인인데, 실은 상주가 분지같이 아늑한 지형으로 동학교를 만들어 일제를 거쳐 근년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나도 마지막 교주 김주희 씨와 문통(問通)을 한 일이 있어요. 동학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와 비슷한 점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거리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커지면서 다시 이런 주변을 연구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창록** : 상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셨는데요. 그 시절 말씀 좀 해주시죠.

**최종고** : 청동초등학교는 내 삶에서 중요한 시절이에요. 6·25사변 끝나고 뿔나무 밭을 일구어서 만든 신설학교인데, 유리창도 없고 문종이로 말라서 겨울에 칼바람이 불면 다 찢어져서 추워서 붙들고 울었습니다. 양말도 없어 맨발로 다니고, 짚신에서 검정 고무신으로 바뀌는 시절에 살았어요. 교회를 통해 구호물자를 비교적 많이 받았어요. “사지”라는 미군 군복같은 것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한 친구는 말하기를 내가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선도적으로 나를 계몽시켰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매서인(賣書人)이에요. 기독교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면, 교회에서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매서인으로 부터 산 책들로부터 어릴 적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중에는 특히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용 책자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마음상태에 대한 그림책이었는데, 나도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을 했지요. 나중에 독일에서 보니 이 책이 스위스 바젤선교회에서 만든 책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세계에 보급된 선교책자였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골에서도 세계문명과 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김창록** : 중학교 때 특별히 기억나시는 일은 없으신지?

**최종고** : 청리중학교도 6회 졸업인데, 그때 우리 초등학교 말고 옆에 청리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항상 라이벌 관계였어요. 당시에는 상주나 김천으로 기차 통학을 했어요. 청리초등학교 이태원 교장선생님이 청리에도 중학교를 신설하셨는데, 공부는 안 시키고 일만 시킨다고 해서 똥통학교라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보냈어요. 실제로 잡초뽑기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때 달맞이꽃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 식물인지 몸으로 배웠어요. 그때는 아무런 경쟁도 모르고 자연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입학하니깐 남녀 두 개 반을 만들기에 남학생 수가 많아서 여학생 반에 키 작은 남학생 20명을 집어넣어서 나도 여학생 반에 들어가 여학생 반장을 만드는 부반장을 했어요. 남녀공학이라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그때 야구가 처음 들어왔는데, 야구대회를 하면 옆에서 여학생들이 응원을 해주면 우리 꼬마 20명이 큰 남학생반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교육상으로 남녀공학이 좋다고 봐요. (일동 : 웃음) 그렇게 낭만적이고 전원적인 중학시절이었었는데, 그리 지나다 보니깐, 졸업하고 경북고등학교를 갔지만, 당시에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현규 선생님이 대구에 동중학교로 전근을 가신 후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는 반드시 경북고를 와야 한다고 극진하게 개별 지도를 해주셨어요. 동중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도 보내주셨고, 나 혼자 풀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채점도 해주시고 해서 그 선생님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김창록** : 신현규 선생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계기가 있었나요?

**최종고** : 그 선생님은 당시에 무신론자셨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시면서 나를 자주 놀리셨어요. “재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주위 선생님들 앞에서 무안을 주곤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하루는 칠판에 “현대인의 최상의 윤리는 생산을 하는 데 있다”고 쓰시면서, 목사는 생산과는 관계없는 직업이라고 놀리시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그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경북고에 가면 아들을 지도해주기를 바라던 그런 면도 있었어요. 대구에서 내가 그 아들도 지도해주고 해서 나중에 그 아들이 대학 교수로 되었지요. 어쨌든 당시에는 신 선생님의 지도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이철우** : 그 선생님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셨나요? ‘무신론’, ‘생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최종고** : 그것까지는 몰랐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분이 병으로 교직을 일찍 그만두시고 결국에는 기독교로 회심하셨어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 한 달 전에 나를 대구에 오라해서 영수학원 다니면서, 밥은 그 선생님 댁에서 먹고, 자기 친구인 경북중학교 영어선생님 집에서 자고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동가식서가숙이었죠. 경북중학교 선생님이 나를 경북중학생과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던 것도 나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어요. 실제 접해보니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 〈고교시절〉

**김창록** : 저는 대구에서 살다보니깐, 경북고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요. 당시에 도 그만큼 대단한 학교였지 않았습니까?

**최종고** : 그건 그렇죠. 서울 제일고보 경기고, 평양 제이고보, 대구 제삼고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졌고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입시켜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경북고에서 서울에서보다도 큰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서울에 가도 객지생활을 하니깐 차라리 일본유학을 가자고 해서, 나중에 더 잘된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상주 촌놈이 대구 시내 고등학교를 가서 열등감도 많이 느꼈어요. 1학년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책을 푸대자루에 매고 등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맘에 맞는 친구 한 명이랑 ‘돌탑문학동인회’라고 문예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시화전도 하고,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면 경북대 교정에 가서 시(詩)도 쓰고 했어요. 문학의 밤, 시화전을 여학생들이 보러 오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당시 유일한 운동이 남문시장에서부터 옛날 대구역에 이르는 중앙통을 걸어서 갔다가 오는 것이었어요. 치마에 백삼선을 수놓은 경북여고생들을 보면 괜히 가깝게 느껴졌지요. 특히 대구출신들은 자기들 끼리 동아리도 만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문예반 활동만 했어요.

**이철우** : 경북고 동기들 중에 나중에 크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고** : 철학과 황경식 교수, 경제학과 강광하 교수, 외국어대학 김승진 교수, 영남대 이한유 교수와 김영태 교수, 계명대 이병찬 교수가 있지요. 대구대 총장을 지낸 이재규 총장이라고, 피터 드러커를 많이 소개한 학자도 있어요. 정계나 고위직 이런 쪽은 특별히 없고, 군장성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TK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북고가 정계나 법조계 같은 권력지향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TK라는 것도 있다고 말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돌탑문학동인회도 50년을 면면히 계승하여 작년에는 기념문집도 내고, 경맥문학회라는 것도 만들어 나가보면 정해창 전 법무장관 같은 선배도 나오시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나는 이런 면으로 영남문맥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약소한 힘이나마 이런 선비정신을 잇는다는 책임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김창록** : 고등학교 때 기억 남는 것이 또 없으십니까?

**최종고** :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 대구에 올라오셔서 자취방에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당시 어머니는 청상과부셨는데 한 명 있던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태풍 사라호에서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공부를 위해 대구에 갔는데 따라오셔서 미나리 장사, 떡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2 때 백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구 약방들을 돌아다니며 ‘텍사메다손’이란 약을 구하려 다녔던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골에 조부모님만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내가 대학에서 독일 유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고2 때 어머니 돌아가신 건 큰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염세적으로 되기도 했는데, 그때 안병욱,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들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에 철학으로 김형석 교수께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공부도 힘들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원고지 두 장에 “구름이 많은 것 같아도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항상 햇빛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 답장을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그 생각이 나요.

**이철우** :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김형석 교수님 자제분과 같이 독일 유학하셨잖아요. 굉장한 인연인데요?

**최종고** : 그렇죠. 그리고 법대에 들어오니깐, 안병욱 교수님이 철학개론을 가르치

셨어요. 1학년 교양과목으로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렇게 안 교수님과 인연을 맺고 계속 이어졌어요. 김형석 교수님과는 대학교 때 시내에서 하는 교양강좌를 듣기도 했고, 회갑 때 논문 한 편도 드렸고, 덕에 세배도 가고 했어요. 프라이부르크에 가니깐, 나보다 한 살 위인 아들 김성진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림대 교수를 하다가 정년했습니다. 지금도 김형석 교수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시거든요. 나는 그 비결을 스케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 흥내를 내느라고 재작년에 한번 타 보다가 넘어지는 조그만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이철우** : 김 교수님은 나중에 별 기회가 있었겠네요. 그때 “제가 그때 편지 썼던 고등학생입니다”라고 밝히셨습니까?

**최종고** : 네. 그랬습니다. 최근에 들으니 강원도 양구에 이해인문학관과 김형석, 안병욱 철학관을 함께 지었다는데, 정년도 했으니 이제 시간을 내어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 〈법대 지망동기와 법대 학생시절 기억〉

**김창록** : 법대는 왜 오시기로 하셨습니까?

**최종고** : 꼭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드디어 나왔군요. 사실 법대는 생각에도 없었어요. 웬지 화려한 외교관이 좋아보여서 외교학과에 가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로 나를 직접 데려가셨어요. 양재휘 교장께서 “너는 키가 작아서 외교관이 되기 힘들고, (웃음) 꼭 외교학과에 가야만 외교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철학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어요. 고3 때 담임이셨던 김용대 선생님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셨는데, 바로 이 분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님의 친형님이셨어요. 수학선생님이셨는데, 나는 이과 과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담임선생님이 이과 선생님이시다 보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고3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키도 크시고 웬지 가깝게 느껴지고 의지하고 싶었어요. 수업에 들어오시면 칠판에 논어 한 구절을 한문으로 적고 가르치신 후에 수업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런 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에는 문과라 하더라도 수학시험이

서울대 당락에 결정적이었는데, 그 분이 수학도 차근차근 풀면 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에 서울대에 합격한 셈인데, 그 선생님께 내가 전폭적으로 마음으로 의존하면서, 심지어 연애상담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깐, 서울대에 입학만 하면 창경원에 벚꽃 필 때 예쁜 여학생들이 줄줄 따라다닐 테니 대구 여학생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까지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일동 :** (웃음)

**김창록 :** 그 선생님께서 법대를 권하셨나요?

**최종고 :** 네, “내 동생이 판사인데, 너는 집도 가난하니 법대 가서 공부하면 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법대에 들어왔지요. 나중에 김용철 대법원장님이 퇴임하시고 형님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어요. 경찰계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들도 내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대구 내려가 추도문을 쓴 것을 고맙게 생각해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김창록 :** 선생님은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이끌어 주셨던 은사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시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고 :** 대학은 1966년 봄에 입학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정년을 하면서 서울대출판부에서 내는 『서울법대시대: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2013)라는 책으로 재학시절부터 오늘날까지의 얘기를 비교적 상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한마디로 법학이 싫어서 정을 못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1학년 교양과목을 공부할 때는 특히 영어는 재미있었는데, 2학년 올라가서 형법을 유기천 총장님께 배웠는데, 총장직 하시면서 강의도 하셨어요. 형법은 재밌었어요. 김증한 선생님 민법총칙이 명강의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재미를 느끼려 해도 안 되었어요. 그 이후 법학과목이 다 그랬고, 그렇다보니 학점도 안 좋았어요. 그 대신 ‘구름다리’를 넘어 문리대에 가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문리대 학생들이 와서 텃새를 부리면서 법대생들이 오면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동 : 웃음) 그러면 법대에서는 덩치 좋은 학생들을 앞세워서 가기도 하고, 김학원 의원이라고 힘센 동기친구와 같이 가서 대항하고 도강(盜講)도 많이 했어요. 신사훈 교수의 종교학도 들었고. 불어는 예쁜 여교수가 가르치신다고 해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해석을 시키시길래 당황해서, “저는 외무고시 준비생이라 불어가 필요해서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하여튼 문리대 가서 많이 지냈죠. 도서관도 법학도서관은 답답하고 발 냄새도 나고 해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야스퍼스 같은 실존주의 철학 책들이나 신학을 좋아해서 폴 틸리히, 에밀 브룬너, 라인홀드 니이버 등의 책들을 읽는 데 심취했어요. 영어책으로 『Introduction to Jung's Psychology』라는 문고판을 사서 읽고 있는데, 법대친구가 “정이 누구냐?”라고 해서 (웃음) 속으로 법대생들을 경멸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학점을 초월한다’는 여유도 있었고, 이렇게 대학생활을 보냈죠.

나머지 시간은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영락』이라는 저널을 혼자 편집했는데, 내가 석사 지도교수로 모시던 노동법 전공인 김치선 교수께서 그 교회 집사시면서 그걸 담당하셔서, 말하자면 그 명목으로 나를 아르바이트를 시키셔서 매달 용돈을 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이 거의 비중이 같을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활동도 재밌게 하고, 그렇게 지내다보니 법학보다 신학을 하려고 연세대 신과대학으로 전학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유기천 총장님께 밤에 총장공관으로 당시 학부 2학년 학생으로 면담을 하러 갔어요. 가서 다짜고짜 “저는 법학이 싫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노발대발하시면서 “2학년인 네가 법학을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어들자, “네가 사도바울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법을 마스터한 사람이야”라고 하시면서 나를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서러워서 땀뿜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총장님마저 나를 이해 못하시는구나 야속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법을 계속 하면 총장님만큼 똑똑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도 실행에 옮길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이한기 교수님께 가서 면담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신학을 하더라도 라인홀드 니이버 같이 사회과학을 잘 아는 신학자가 되어야지”라고 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라인홀드 니이버 같은 신학자를 법대 교수님은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이 다가오니깐 다른 친구들은 사법시험 준비도 하는데, 나는 당연히 대학원을 가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안 보고 대학원을 가는 것은 대단히 예외에 속했어요. 그래서 노동법을 전공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대학원 진학, 노동법과 전태일 사건〉

**김창록** : 당시 대학원생은 몇 명이었습니까?

**최종고** : 10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다닌 동료로 김효전, 박수혁, 이기수, 이영란, 김수동, 이균성 이런 분들이 기억나요.

**한인섭** : 왜 대학원을 가느냐고 친구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셨어요?

**최종고** : 우선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피데스』지에 졸업할 때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 “못다한 장(章)의 미련”이라는 제목으로, ‘남들은 4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나가는데, 나는 제대로 법공부를 안 했으니깐, 대학원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지요. 직접적으로는 김치선 선생님이 연구실에 와 있으라고 하셔서 갔더니, 키가 작은 대학원생 조교가 나한테 자리인계를 해줬는데, 그 분이 바로 현경대 의원이셨어요. 나중에 그 분이 김 교수님 사위가 됐어요. 김 교수님 따님이 현소혜 교수 어머니세요. 김치선 선생님은 나중에 국제 노동법학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활동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안 나오셨고 그러다보니 내가 연구실을 혼자 쓰다시피 했어요. 어떤 때는 연구실에서 몰래 촛불을 켜고 가린 채 밤새워 책을 읽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조영래가 오더니 “지금 책만 보고 있을 때냐”고 하면서 전태일 분신사건을 알려줬어요. 지금 명동 성모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생전에 기독교 대학생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했다고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서둘러 갔더니 경찰들이 제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소선 여사가 나를 처음 보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던 아들 같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고 나무라기라도 하는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같이 기

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옆을 봤더니 현영학, 서광선 같은 이화여대 신학자들과 오재식 같은 기독교학생연맹 간사 일행이었어요.

장례절차를 논의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내가 나가는 영락교회니깐 그리로 하자고 해서, 그 길로 밤 9시쯤 영락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사찰집사인 최학송이라고 서울법대를 중퇴한 집사가 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서 이런 골칫거리를 왜 교회로 데리고 왔냐고 나무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냐고 하길래 교회문을 나와서, 대안으로 서울법대에서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어요. 당시 동갑이지만 학번이 하나 위였던 조영래를 내가 기독교 쪽으로 좀 안다고 YMCA 호텔로 데려가 방 하나를 빌려서 장례식을 모의했어요. 우선 함석헌 선생, 윤보선 선생, 강원용 목사 같은 분들을 모시고, 법대 교정에서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어요. 당시 연세대에 브라이텐슈타인(Breidenstein)이라고 사회윤리를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는데, 사회정의의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며 책도 내고 해서 기독교 청년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이 분이 새문안교회에서 대중강연을 마치고 청중들을 데리고 데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이 커진다고 해서 “정말 할 생각이나”고 물었더니 강원용 목사하고 상의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종로 2가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데리고 갔더니, 강 목사님이 뜻밖에 냉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브라이텐슈타인 교수가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상의하러 가겠다고 해서, 나는 강 목사님께 다시 들어가서 따졌더니, “최군! 외국인이 행동을 하는데 연루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깐 ‘내가 너무 나이트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재식 선생도 나보고 “조영래는 침착한데, 너는 너무 흥분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저런 일로 전태일 사건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 후에 알다시피 조영래는 ‘제2의 전태일’이 되고 싶어 평전까지 쓰고 일찍 작고했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깐, 특히 교회에서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마저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못 되는구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결국 이해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당시 사울 알린스키(Saul Alinsky)라는 사회운동가가 쓰던 전략이 있었는데, 은행에 가서 1달러씩만 저축하면서 줄을 막아 부자들의 돈을 줄을 차단시킨다든지, 동대문의 빈민가를 보면서 한국의 빈민들이 성냥개비에 불을 붙여서 던지라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혜화동에 가면서 보니 집집마다 문패들이 번듯번듯 달려 있는데 그게 다 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식이 끓어 올라오기는 했지만, 기

독교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었어요. ‘노동운동이라는 것, 노동법이라는 것도 나같이 나약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구나’, 도시빈민선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강인한 인물들인 것을 보고 ‘나는 안 되겠다’하고 단념했지요. 그래서 내 석사논문은, 당시에 라드브루흐(G. Radbruch)를 처음 알게 돼서 『법철학(Rechtsphilosophie)』 번역도 했지만, 그의 『법에 있어서의 인간(Der Mensch im Recht)』라는 책을 보니까, 인간을 새롭게 보아야겠다, 그래서 ‘법주체로서의 인간에서 본 사회법의 존재론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법철학과 사회법학을 엮어 석사논문으로 쓰고 그걸로 노동법은 끝냈어요. 들어가다 만 것이지요.

### 〈신학열병과 아카데미 근무, 결혼〉

**이철우** :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을 먼저 다니다가 그만두고 법대로 오셔서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최종고** : 맞는 얘기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해도 석사를 가지고는 강의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19 10주년 때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학생연맹(KSCF)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데, 내가 학생연사로 나갔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강원용 목사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최종고의 신변을 잘 보호해주라고 그런 당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석사 졸업후 나를 부르시더니, “크리스찬 아카데미에는 외국 저널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한국에 여기만큼 최신 저널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 공부하면서 『대화』지를 편집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지가 나중에 문제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된 건 『월간 대화』지이고, 내가 담당했던 것은 아카데미에서 세미나, 당시 독일말로 타궁(Tagung)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뉴스레터 정도의 저널로 냈어요.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는 프레스 릴리즈, 즉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어떤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김수환 추기경, 청담 스님, 법정스님, 이어령 교수 등과 상대로 밤늦도록 얘기하는 일 등 대화운동의 피크였어요. 그것은 당시에는 대학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강 목사님이 독일의 아카데미운동에서 배워서 수준 높은 지적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기록했던 것이지요. 그 『대화』지를 보고 고은 씨가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고 전화를 해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내 평생직장은 못되니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강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반대를 안 하시고, “최군은 예장 신학을 가야한다. 한국은 예수교장로회가 제일 큰 교단이고 그것이 변해야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스마트함에 또 놀랐지요. 그래서 예장 입학시험을 봤는데 수석합격을 했어요.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에다 수석합격이라고 해서 떠들썩했죠.

그래서 제대로 신학공부를 한다고 집도 광나루 신학대학 앞으로 방 한 칸을 얻어서 사는데, 그 무렵 아카데미 여직원 동료로 있던 이해숙과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후일 서울대 미학과 교수가 된 김문한 선생하고 그렇게 셋이서 한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몸이 날씬하게 보이면서도 강단있게 일을 하는 이해숙과 결혼했죠.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반대를 안 하고 등록금도 자기 월급으로 대어 주었어요. 들어가서 보니 예장신학이라는 게 ‘학문과 경건’이 모토인데, 학문적 동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데예요. 나는 니이버식의 사회정의라는 막연한 것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전혀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밤에 기도원에 가서 통성(痛聲)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때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데 마침 군방위 소집이 왔어요. 신혼 때 수색에 가서 훈련받고 6개월을 장위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부터 신학을 계속 못하겠다고 생각했고, 아내도 사모님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대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법대로 돌아왔어요.

박병호 선생님이 그때 『한국법제사고』를 내셔서, “최종고 석사 해준”이라고 아주 정갈하게 써서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는 대단히 힘이 되었어요. 여전하신 모습으로 계시면서 아카데미 다녔다는 것도 외도했다고 봐주시지도 않고, 사회경험을 하고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친정에 돌아오는 기분 내지는 돌아온 탕자의 기분으로 박사과정에 들어왔죠. 1975년 그해 관악캠퍼스로 이전했죠.

**이철우** : 소문에는 대학 진학 전에 신학교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였군요.

**최종고** : 네, 와전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나는 그런 예는 아니에요.

### 〈독일 유학 가기 전의 저술활동〉

**한인섭** : 독일 유학가신 것은 언제죠?

**최종고** : 1975년 말인데요, 그때 만해도 유신체제로 위수령도 나고, 학교에 군인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오긴 했지만, 새로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때 라드브루흐 『법철학』을 번역하고,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 전기를 쓰고는 했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유학밖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는 곳은 기독교계통으로 강원용 목사님을 통해서 에큐메니컬 스칼라십이라고 세계기독교 회협의회(WCC)에서 주는 장학금 시험을 봤죠. 그게 됐는데, 마지막 최종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맙게도 나를 독일의 아테나워 장학재단으로 넘겨줬어요. 그게 돼서 독일을 1975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갔어요.

**한인섭** : 유학 얘기 들어보기 전에, 독일로 가셨을 때 당시 몇 살이었죠?

**최종고** : 1947년생이니깐 28살.

**한인섭** : 75년에 유학가시기 전에 이미 내셨던 저작들, 저서와 역서가 뭐가 있었나요?

**최종고** : 석사논문을 기초로 법대 그 당시에 『Fides』에 실은 글하고, 법철학회에서 발표한 글을 모아서 『법과 종교와 인간』이라고 처녀작을 냈죠. 1972년에. 그리고 석사논문 부분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서 그것 자체로 책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인쇄본을 표지만 바꿔서 삼영사에서 1973년에 『현대법에서의 인간』으로 내고,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을 번역하고, 『사도법관 김홍섭』을 냈지요. 그 책은 명동성당 구내서점에 가서, 김 판사님의 『무상을 넘어서』라는 수필집을 보고 내가 평소 고민하던 것을 이렇게 깊이 미리 하신 분이 계셨구나 해서 빠져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승헌 변호사를 뵈었더니 김 판사님 전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전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책을 읽고 느낀 감동을 기초로 빨리 들어가다시피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지금도 아쉬움이 좀 있는데, 당시에는 여유도 없고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무상을 넘어서』의 감동, 시, 그림을 가지고 쓰면서 나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신학자다’라는 식으로 조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엄격한 의미의 전기라기보다는 평전이라고 할지, 내 느낌이 많이 들어간 책인데, 그러나 그 책이 한국 법률가에 대한 최초의 전기로 많이 읽혔어요. 당시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법률가로 단연 김홍섭 판사가 꼽혔을 정도입니다. 또 그 책을 통해서 그 분의 덕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근대 사법 100주년 될 무렵에는 덕에 가지고 계시던 법복을 법대 귀중 문서실에 기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대법원으로 가야 합니다”해서 지금 대법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인섭** : 그런데 『무상을 넘어서』 책을 보니깐, 그것만으로는 『사도법관 김홍섭』이 안 나오거든요. 그 책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인터뷰하고 좀 더 보충하신 것입니까?

**최종고** : 네. 그건 맞아요. 앞에 서문에 보면 감사하는 분들이 열댓 분 정도 있지요. 당시 서정원이라는 대법원 도서실장과 허규 변호사가 많은 증언을 해주셨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추천사를 받으려고 조진만 전 대법원장님이 변호사로 계셨던 안국동 사무소로 갔더니 끝내 거절하시더라고요.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구두증언은 여러 분들한테 받고, 또 ‘법신학’(Rechtstheologie)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장면 박사가 “사도법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상당히 탈속한 성직자형 법관이어서, 그런 타입에 내가 완전히 매료당했죠.

**한인섭** : 만약에 그 책이 안 나왔으면, 김홍섭은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까요?

**최종고** : 글쎄요. 법률가나 법조가 전문직이다 보니 일반인의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잘 안 알려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신화적인 인물, 사형수에 대한 관심, 아직 사실 그 작업은 덜 끝났어요. 특히 한인섭 교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시 사형수들이 김 판사에게 보낸 편지, 이게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책에서 아직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어 책으로 만들어, 김 판사님 그림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다시 새로 멋 있게 낼 필요가 있어요.

**한인섭** : 자크 엘룰(J. Ellul)의 『폭력』은 1975년에 번역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20대 후반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일 텐데, 이때 일개 대학원생이 이례적일 정도로 아주 많은 생산적인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라드브루흐 번역은 쉬운 일도 아니고, 『사도법관 김홍섭』도 완전히 창작이잖아요. 왕성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20대 후반을 돌이켜 보는 사회와 지금의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최종고** : 고민과 시행착오, 나도 많이 했지요. 그런 것이 젊은 시절에만 가능하고 또 부딪혀 봐야지 머리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지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전공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면서도 전과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나의 경험이 법대 후학들에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충고가 될런지는 사회가 많이 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집안적으로도 약간의 비극적 요소를 안고 있는 고독감,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자유도 어느 정도 허락된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반대하거나 방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다만 젊었을 때 그래도 순수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치있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후일 되고 싶은 상(像)을 그려나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괴테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젊었을 때 꿈꾸던 것을 나이 들어 성취한다”(Was man in Jugend begehrt, hat man im Alter die Fülle.)고 할 수 있겠지요.

**한인섭** : 그럼 20대 후반에 자기 이름으로 책을 완성하게 될 때, 주위의 격려도 있지만, 질시도 있고 만류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기 이름으로 책 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최종고** : 질시로 책을 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출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종교와 인간』이 지금은 삼영사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왔지만, 당시에는 세종문화사라고 고향 선배가 하는 출판사를 찾아가서 사정해서 자비출판을 했어요. 삼영사에서 낸 라드브루흐 『법철학』 번역서를 단독 이름으로 내는 데는 다소 투쟁이 있었지요.



**김창록** : 당시에 자비출판으로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이 예외적이지 않았나요?

**최종고** : 말이 자비출판이지 출판비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청했어요. 하여튼 책을 내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은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초판 『법과 종교와 인간』은 종이에 색지를 오려서 붙여보면서 직접 표지 디자인도 해보고 그랬어요. 초기의 책을 낼 때의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할 강한 추억이에요. 그 책 내고 출판기념회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오신 축하객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한인섭** : 책을 쓰고, 편집하고, 이런 것을 유달리 좋아하신 거죠?

**최종고** : 초등학교 시절 경험도 있고, 『영락』지를 편집했고, 『대화』지도 내보고 해서, 편집을 하는 즐거움을 난 알아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법대 『Fides』가 없어진 것을 법대 동창 문우회 차원에서 살려서 복간호를 냈잖아요. 그 편집을 손수하면서 즐거웠어요. 책과 한평생, 요즘은 그것이 결코 빛나는 길로만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철우** : 그때 라드브루흐에 심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라드브루흐 산업’이 왜 이리 발전했는가, 그 분이 왜 수입되었고 계속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철학자로 숭앙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최종고** : 내가 라드브루흐를 처음 접한 건 대학 입학하니까 정희철 선생님이 라드브루흐의 『법학입문』을 번역하신 책이 있었는데, 법대생의 세 가지 타입을 듣는 순간, 나는 세 번째 타입, 즉 취미나 재능은 문학이나 예술에 있으면서 법을 통하여 여유를 얻은 후 그 방면에 정진하려는 사람, 그는 법학을 중단하기 쉽지만 끝까지 하고나면 창조적인 법률가가 된다는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는 한스 켈젠의 번역서가 나와서 법대생이라면 입문서로 읽고는 했는데, 켈젠을 읽으면 정결하고 법학적 냄새를 느낄 수는 있지만, 뭔가 문화적 푸근함이랄까 풍부함은 못 느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에밀 브룬너가 쓴 『정의와 사회질서』와 켈젠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는 둘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 갈팡질팡만 했지 감동은 별로 주지를 못 한다고 느끼던 터에, 라드브루흐를 읽어보니깐,

한마디로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이 다 들어있다고 느껴졌어요. 거기에 종교, 예술, 역사가 다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어 연습을 하면서 영역, 일역 다 놓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라드브루흐는 지금까지도 한번도 싫증을 주지 않는 법철학자로서 그를 만난 것은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들어서면서부터 라드브루흐로 출발해서 독일의 법철학을 한국 법학도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출발해서, 바로 그 정신으로, 그걸 상대주의라고 해도 좋겠습니까마는, 정의란 이념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은 다 다르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고,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서히 동아시아 법철학(East Asian Jurisprudence)으로 넘어가는 기초가 라드브루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50대가 되면서부터 그렇다면 라드브루흐가 왜 이렇게 계속 나에게 매력과 자극을 주는가하고 숙고하다보니깐, 그 뒤에는 괴테가 서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책 한 권에만 괴테가 28번이나 인용되어 있을 정도예요. 라드브루흐는 영국에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괴테에 대하여 강연도 하였지요. 나는 괴테라는 이름은 어릴 적에 알았지만 너무 거리가 먼 부잣집 아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이 50이 되니깐 인간 괴테, 『파우스트』는 좀 어렵지만, 전 생애로서의 괴테를 보기 시작하니깐, 우선 법학을 공부하여 법학박사에 변호사에 재상(국무총리), 이런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불후의 작품을 60년 동안 저술한다는 것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노력하는 한 실수는 있고 방황은 하지만”, 김증환 선생님이 학생시절에 “스케일이 커야 한다, 파우스트적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큰 자극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라드브루흐를 통해서 괴테,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독일유학〉

**김창록** : 그럼 독일 유학 얘기로 들어가 보죠.

**최종고** :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로 유학 갔는데, 캠퍼스에 혼자 갔더니 연말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본관 벽에 “Die Wahrheit wird euch frei machen”(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이라는 성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여기 머물러서 공부해도 되겠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갈 때는 라드브루흐 『법철학』 번역판을

편저자 에릭 볼프(Erik Wolf) 교수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떠났는데, 마음속으로는 프라이부르크에 남든지 아니면 뮌헨대학의 아르투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에게 가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괴테학원에서 독일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볼프 교수께서 갑자기 나한테 그 책을 잘 받았다고 댁으로 오라고 초대해서 혼비백산이 되었죠. 그래서 정종욱 박사랑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교수라는 라드브루흐 연구가, 이렇게 셋이서 볼프 교수 댁을 찾아갔죠. 입이 안 떨어져 정 박사님이 다 통역을 해주셨죠.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당시 정 박사님이 본(Bonn)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다가 벨첼(Hans Welzel) 교수를 길에서 만났어요. 벨첼 교수는 내가 대학 2학년 때 서울대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선배들 사이에선 무슨 성인이 온 것 같이 난리가 났었는데, 당시에 유기천 총장님이 독일어로 유창하게 벨첼 교수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한국인도 저렇게 독일말을 할 수 있는가’해서 충격을 받았고, 통역은 권영백 박사라고 김지수, 정종욱과 동시에 세 분이 독일에서 라드브루흐로 박사논문을 쓴 분이 했어요. 카우프만 교수가 ‘왜 동아시아의 한국인이 모두 라드브루흐에 대하여 논문을 썼는가’라는 것을 법철학잡지(ARSP)에 글로 썼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랬던 벨첼 교수가 본(Bonn)에서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찢쩍쩍 찢쩍 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그 분은 물리치료를 받고 오시는 길이었는데, 학부 때하고는 사뭇 다른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학자도 너무 머리를 쓰면 저렇게 되나보다. 이 어르신을 내가 얼마동안 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1년도 안 되서 돌아가셨어요. 황산덕 선생님이 법무장관으로 오셔서 무덤에도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볼프 교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려고 뮌헨에 가느냐, 내 제자인 홀러바흐(A. Hollerbach) 교수한테서 공부하라고 해서, 거기 남기로 결심했어요. 가서 첫 대면을 하는데, 그 분이 젊을 때는 매우 뽀뽀 정도로 미남이셨고, 공부할 만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박은정 교수도 같은 지도 교수 밑에 있었어요. “논문 제목을 생각해 봤느냐”고 하시길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법신학(Rechtstheologie)에 대해서 써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깐, 써보라고 하셨어요.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독일 법신학은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전후 30년 동안 개신교 학술연구소에서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루돌프 스펜트, 게르하르트 라이프홀츠 이런 분들이 건설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로 자료수집 차 얼마동안 갔다 오겠다고 하니깐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30년 동안 세미나를 했던 원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황금덩어리인 것 같아서 좋아 싶었는데, 도중에 알고 보니까, 법신학으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툼한 책 2권으로 나온 걸 보니깐 아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써본들 이것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하고 절망해서 돌아가서 지도교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다른 거 생각해 본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그 선생님의 연구관심이 유럽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교회’였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국가와 종교”로 박사논문이 결정됐어요. 그렇게 되니깐 진짜 독일적인 것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주제가 바뀌어서, 한국학을 한다는 기분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마침 당시에 ‘악세(AKSE)’라고 유럽한국학회가 런던에서 1회를 개최하고 파리에서 2회가 개최되었어요. 거길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보니깐, 소위 한국학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발표토론을 하는데, 한국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학위논문 쓰는 것은 아주 즐겁게 했어요. 절반은 역사적인 발전과정, 나머지 절반은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논문을 다 쓰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니깐,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영역이 어중간해서, 서양법제사로 교수지원을 하니깐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전임이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 〈귀국 후 전임발령〉

**이철우** : 당시 전공분야가 정해져서 임용공고가 났나요?

**최종고** : 예. 그랬어요. 오기 전에 이한기 학장님께 모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편지로 말씀드렸는데, 1979년 2월에 학위하고 여름에 귀국했는데, 2개월 있으니깐 10·26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내가 81년 1월에 발령을 받았으니깐 1년 반 정도 시간강사였어요. 학교에 내 의사를 말씀드렸고, 전임이 안 되고 있던 중에, 유기천 총장님이 ‘서울의 봄’ 때 법대로 금의환향을 하셔서 오랜만에 강의하시는 것을 직접 참관했지요. 학생들에게 “마르틴 루터처럼 용기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를 보시더니 “빨리 전임이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시는데, 그게 대단히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김증환 선생님의 적극 주장으로 법사상사 전임교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 〈유일의 법사상사 전공교수, 법사상사 방법론〉

**한인섭** : 법사상사로 타이틀을 받기 전에, 내가 전임이 되면 어떤 전공 전임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최종고** : 지금 한국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분명한 과목분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독일 유학할 때는 법철학연구소에 있으면서, 지도교수님은 법철학, 교회법, 행정법을 하셨는데, 행정법하고는 잘 안 맞고, 교회법은 한국 사정하고는 잘 안 맞는거고, 참 어중간했죠. 다만 바로 건너편의 법사연구소도 들락거리며 ‘역사적 관심을 갖는 법철학자’라는 홀러바흐 교수의 학문적 태도를 은연중 체득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법철학과 법사학을 연결짓는 법사상사라는 과목을 맡게 된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지요. 당시 한국에서 법사상사는 해방직후에 고광림 교수가 담당하시다가 김철수 선생님, 최송화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김증한 선생님이 전임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발전시켜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과목이 나한테는 스타일이 맞는, 학제적 특성이 강한 분야 같아요. 좀 외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 것은 아니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죠. 대신 나대로 결심한 것은 이것으로 세력을 불러 학맥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사상사학회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회는 법철학회와 법사학회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철우** : 법사상사라는 과목은 한국, 일본, 중국 정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법철학사’라고 번역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History of Legal Thoughts 또는 Ideas’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History of Legal Philosophy’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법철학사’지, 굳이 ‘사상사’라고 해야 하느냐 생각해요. 제가 아주대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한 과목이 법사상사였거든요. 그때 법철학과 법사상사가 뭐가 다르냐 이걸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과목 명칭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구요, 오늘 선생님 뵈러 오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것이 서울대에 법사상사라는 전공으로 부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제약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무슨 과목으로 교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강의와 연구가 제약을 받잖아요. 그때 법사상사라고 하면, 법철학 하기도 어렵고, 법제사 영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최종고** : 그런 면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사상과 철학이라고,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첫 시간부터 그 설명을 하는데, ‘법사상사’는 법철학사보다는 문화사, 사회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학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런데 법사상사뿐만 아니라, 사상사라는 것 자체가 방법론적인 면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학문의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아시아적 개념이고, 독일적인 거예요. ‘Geschichte des Rechtsdenkens’로 번역되는데, 독일 내에서도 특히 프라이부르크의 에릭 볼프적인 거예요. 그분이 쓰신 『위대한 법사상가(Große Rechtsdenker)』는 ‘법사상가’의 역사이지, ‘법철학자’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한 인물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법에 관한 것도 유연성있게 한다는 건데, 나는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범이면서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사상사야말로 법철학하고 법사학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중간매개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보니깐, 내 나름으로는 생각하기를, 젊은 시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사학쪽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그렇다고 제도사적인 법제사 이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필드워크같이 실증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하는 것도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상사라는 그런 범위에서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법철학 쪽으로 좀 더해보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특히 법철학 쪽으로, 법철학은 내 정신적인 면에서는 긴장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기는 합니다만, 법을 규범과 사실을 둘 다 보면서, 물론 그걸, 미국의 제롬 홀(Jerome Hall) 같은 사람도 얘기는 했지만, integral jurisprudence라고, 방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어설프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면에서는 양쪽을 본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법철학쪽은 내가 뭐 법철학책을 앉아서 읽고 이론화할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데, 세계법철학회(IVR)를 한 20년 참가하면서 재작년까지 8년간 이사로 활동하는 중 세계적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카우프만 교수가 즐겨 쓴 ‘여행하는 법철학’(Rechtsphilosophie auf der Reise)이란 말을 나도 좋아해요. 비교법철학이란 방향이라 할 수도 있고요.

### 〈법사와 법사상,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한인섭** : 1980년에 『법사와 법사상』, 1982년에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두 권 다 주제가 독특하고, 종래까지는 잘 다루어지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법사와 법사상』에서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에 대하여 많은 양을 할애해서 쓰셨잖아요. 독일대학 도서관에 가서 자료와 1차 문헌들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고 하시면서 학자로서의 긴장감을 얘기하시면서, 돌아와서 한국에 근대법의 기원을 찾으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최종고** : 우선 전임신청을 하려면 논문이 있어야 하는데, “독일에서의 법과 법관념”이라고, Recht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추적하는 논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결국 독일법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전임이 안 되어 갈 데도 없고 해서 규장각에 앉아서, 정옥자 박사랑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독일과 관련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왜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법을 수용했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변호사협회지』에 “한국에 온 서양인 법률가”를 매달 연재했어요. 서양인 법률고문제도가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모아서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라는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려보려고 했죠. 다소 이론적인 것, ‘왜 수용(Reception)이나, 강제이식(imposition)이 아니냐’라는 주제로 대학원생들과 토론하던 것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고, 그러한 것들을 학문하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시는 전임이 안 되서 집도 없고 해서 참 어렵게 지냈어요. 책상도 없어서 그 책은 밥상에서 쓴 책이에요. 『법사와 법사상』 책이 나오면서 학술저작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운이 풀렸어요. 서울대 전임도 되고, 놀랍지만 그 책이 박영사가 최초로 학술상 받은 책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정신력이 높았던 황금기였어요.

**정금식** : 표지 디자인도 선생님이 직접 하셨죠?

**최종고** : 그렇지요. 당시까지만 해도 법문사, 박영사에서 내는 법학서의 표지는 절반을 갈라서 위에는 책명을 검게 박고 아래는 단색 띠를 두른, 디자인도 없는 책들이었어요. 나는 독일의 법사자료에 나오는 그림들을 모자이크해서 처음으로 법학서에 그림을 썼지요. 후에 1995년에 『법과 미술』이란 책에 법과 정의의 상징화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 후 많은 법학서에서 이 책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웃기도 했지요.

**이철우** : 『법사와 법사상』 그 책이 학생들을 열광하게 만든 책이었고, 지금까지도 선생님 저술 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준 책입니다.

**최종고** : 그 책으로 한국일보에서 주는 저작상을 받았는데, 당시 심사위원분들도 법학분야에서 이런 학술성이 물씬 나는 책이 나온 것을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그 책이 내 운명을 결정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양과 한국을 함께 다룬 ‘무모함’도 젊은 학자의 용기로 비쳤겠지요.

**이철우** : 사실 그 전까지 서양법제사 책들이 재미가 좀 없었잖아요.

**한인섭** : 교수님께서서는 한 주제를 파고들었으니깐, ‘이런 것이 학문하는 것이구나’ 하는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책이었죠.

**최종고** :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법제사라는 것이, 김증한 선생님이 민법학의 보조학문이라고 하셨는데, 내 『서양법제사』에서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더니, 김 교수님은 “그건 법제사가 아니다”라고 글로도 쓰셨어요. 내가 서양법제사 책을 낸 것은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맡아 책도 아닌 교정지를 갖고 강의를 했는데, 이 방통대교재가 기초가 되어 박영사에서 낸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교재로 애용되어 판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 국가별 법제사가 무너지고 문자 그대로 ‘유럽 법제사’(Europäische Rechtsgeschichte)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다시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넘기자 하고 단념하고 있어요.

**이철우** : ‘imposition’이나, reception’이나’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선생님은 ‘reception’ 자체를 번역할 때, ‘계수(繼受)’라는 전통적인 용어보다는 ‘수용(受容)’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계수’라는 생소한 용어보다는 ‘수용’이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그러셨나요?

**최종고** : 영어로는 ‘imposition’이라는 말도 있지만, 독일어로는 ‘Rezep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깐, 그걸 다른 분야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계수’라는 용어로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문학 쪽에서도 외국문학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이론(reception



theory)’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립적 개념으로 ‘수용’이라고 번역했지요. 다소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뉘앙스를 담았지만 어디까지나 용어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해석의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종속이론적 문제의식에서 imposition과 연관시켜 활발히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배우고 흐뭇했어요. 법학자로서 국내에서는 이 시절이 가장 보람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김창록** : 그런데 어감상으로는 ‘계수’는 생소하고, ‘수용’은 좀 더 받아들이는 측의 적극성이 느껴지네요.

**이철우** :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계수’나 ‘수용’이나 결국은 같은 ‘수(受)’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인데, ‘계수’라는 용어는 어렵잖아요.

**최종고** : 그래서 내가 일본 동경대(東京大)하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서양법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했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서양법을 수용했다’라는 얘기는 짝 뺐어요. 그래서 구한말에 직접 독일과 교류했다는 얘기만 했더니, 동경대 히라노(平野龍一) 총장이 눈을 지긋이 감고 아무 논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수성 학장님이셨는데, 저녁식사를 하면서 히라노 총장이 배재식 선생님한테 “최 교수는 왜 일본 얘기는 안하느냐”고 물으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표현이 인용도 되고 회자도 되었지만, 일본을 ‘불유쾌한 매개자(unpleasant intermediary)’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없이도 노력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일본이 불유쾌한 개입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감정적인 표현이 학술적 용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지만요.

**이철우** : 그래서 저도 “unpleasnat intermediary”라는 표현을 해외에서 발표할 때 소개하고 있어요. 그전 그렇고 『법과 종교와 인간』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을 보면 ‘법감정과 법의식’에 대해서 상세히 천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는 ‘법문화’라는 말로써 그걸 다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법문화라는 것이 법계(legal family)를 대신하는 말이 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을 ‘법계(legal family)’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법문화”라고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법감정, 법의식에 대해서 그 전에 천착하셨던 것들이 그냥 끝나버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쓰셨던 것들을 제가 오늘 오면서 훑어보니 그 때가 좀 더 근대화론적인 관점이 강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나중에 90년대 넘어오면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일본을 빼는 것은 좋은데, 독일과 직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근대화론적 관점이 보인다는 점에서 종속이론적 문제의식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조금 도전하고 싶은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법은 발전된 곳에서 덜 발전된 곳으로 흐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일종의 확산주의적 근대화론의 관점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저로서는 도전하고 싶었던 테제였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알란 워슨(Alan Watson)의 법이식론(legal transplants theory)을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워슨의 관점과 그걸 비판하는 관점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했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워슨의 관점에 매력을 느껴요. 근대 가만히 보면 그걸 꼭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저희는 종속이론적 관점에서 좀 거부감을 가졌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문제의식을 살려서 다시 한번 논의의 장에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고** : 사실 아까 내가 거창하게 “법사학과 법철학을 연결시킨다”는 표현을 썼지만, 나는 사실 ‘내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이론이 맞고 틀리다’, 이런 것에는 지금까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뿐이고, 특히 법감정은, 일본의 어떤 학자가 법감정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보고 종래까지는 ‘법의식’이라는 말밖에 몰랐는데, ‘법감정’을 달리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깐, 내가 변죽이랄까 빌미만 주어도 제자들이 더 연관시키고, 확대시키고 한다는 모습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즐겁게 봐요. 나는 그런 면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길을 왔는데,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하여는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법이론(legal theory)’, ‘사회이론(social theory)’을 내 스스로 모색하고 그런 것은 원래도 부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한인섭** :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를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구한말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법률가적 역할을 했던가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뮐렌도르프(P.G. von Möllendorff)니 데니(O. Denny)니 이런 사람들은 국사책에서 법률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놀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 내셨는지가 더 놀라웠어요.

**최종고** : 그건 현실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에 매달 새로운 서양인 법률고문을 소개해야 했고, 그래도 서양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분들과 관련된 글들을 읽다보니깐 그렇게 됐어요. 독일 미국에는 인명사전들이 잘 되어있고, 인적 사항은 찾으려면 나오게 되어있어요.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계된 서양인, 특히 한국에 살면서 기여한 그들에 대한 관심에 우리가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가의 범위를 넘어 『한국에 산 서양인』이란 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 중입니다.

**김창록** : 독일에 계시면서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오셨나요?

**최종고** : 그때 한국과 독일과의 관계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 분야에 연구가 전혀 없어서,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그 주제를 정리해 보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들을 많이 구해왔어요. 당시 한국이 늦게 문을 열었던 나라여서 그런지 서양인들이 호기심이 많았고,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읽으니깐 무척 재미있는 거예요. 또한 서양은 역시 한 인물에 대해서 생애정보 등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84년에 『한독 교섭사』를 냈는데, 지금까지도 유일한 한독관계사의 통사입니다. 20년이 지나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라고 갱신을 했지요. 『한독교섭사』를 그때 방한한 발터 쉘(Walter Scheel) 前 대통령에게 한 권 직접 싸인해 선사했는데, 수년 전 프라이부르크 근처의 바드 크로젠겐에서 만년을 지내시는 그 어른을 만나 옛날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역사는 한 바퀴 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한인섭** : 1900년대 초, 한국의 홍재기, 이면우, 장도 이런 분들의 초기 한국법조인들의 연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냈던 『형법총론』 등 교과서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것을 ‘애국적 민족법학’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지금도 그 타이틀에 대하여 생각이 같으신지요? 또 그때 그 시기의 자료들을 대량으로 발굴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연유셨는지?

**최종고** : 법사상사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를 다루는 법제사하고는 구별이 되고, 그래서 내가 특히 법률가에 대해서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한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제에 강점되고 하는 점을 보면서, 내 나름으로는 ‘주권과 제도는 빼앗겼지만, 법학과 법사상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 수난은 받았지만 단절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을 사람을 통해서 입증한 것인데. 내가 독일로 1975년에 떠나기 전에 안국동에 가면 고서점에서 제일 천대받던 것이 한말 법학교과서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걸 보고 한 두 권 사고는 더 사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지요. 그런데 독일 갔다 돌아와서 가보니깐 4년도 안 되서 짝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갔냐고 물으니, 역사학자 이광린 교수가 다 사서 서강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희귀도서로 소장되고 있어요. 그러던 터에 아세아문화사의 이창세 사장한테 『개화기 법학총서』라고 출판하자고 하니깐 적극적으로 영인판으로 내주셨어요. 그 때 서 한 너댓 권 냈는데 너무 수요가 적어 그 뒤로는 중단됐죠. 법대 역사관에도 몇 권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의 법학은 ‘법학사’를 안 배워도 졸업하는 번지수 없는 학문이라 하면 자학적 표현일까요?

**정금식** : 그때 나온 것이 법전하고 교과서도 있었죠? 근데 선생님 80년대 말에 교과서 참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집필동기가 궁금합니다.

**최종고** : 그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도 결국 교과서주의로 빠졌구나’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출발은 ‘교과서주의’를 타파하자였는데, 한국에서는 결국은, 이제는 로스쿨이 돼서 또 달라졌지만, 강의와 연관지어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우선 법사상사 교과서가 당시에는 성균관대 김여수 교수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좋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야겠다 해서 『법사상사』 교과서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동양 쪽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깐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고 내가 한국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깐 『한국법사상사』를 내기로 했는데, 마침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법학총서를 60권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수들이 원고를 잘 안 내는 바람에 나는 추가로 신청해서 빨리 냈지요. 지금까지 서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까지는 책을 냈는데,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아시아법사상사’는 책을 못 내었어요. 한 때 방통대 교재 『법사상사』에 중국편, 일본편, 한국편을 쓰기도 했지만, 내가 이론 것과 못 이론 것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법사상사 종합서는 못낸 거예요.

**김창록** : 근데 왜 못 이루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강의도 안하시고 하니깐 하시면 되지요.

**최종고** : 이제 나보고 또 하라고? (웃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로 넘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 〈미국유학, 버클리, 하버드〉

**한인섭** : 또 하나 묻고 싶었던 것이 1976년부터 독일어권 세계 속에 들어가셨다가 8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90년대에 보면 독일어보다 주로 영어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중요한 법계를 다 같이 한번 느껴보셨는데, 두 세계를 경험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요?

**최종고** : 1987년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사실은 내가 학생담당 학장보를 3년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학생담당은 청소당번이라고 했어요. 본부에서도 전임강사한테 보직을 맡긴다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배재식 학장님 밑에서 5공 맡기 때 밤에 집에도 못가고 학생들과 학교에 있으면 당국에서 교수들 동태도 다 파악하고 그럴 때였는데, 나는 그때를 ‘물망초 시절’이라고 불러요. 학교에 계속 머물 수는 없고, 낙성대 입구 ‘물망초’라는 ‘맥주다방’에 가서 시간을 때우다 12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김증한 선생님도 당시에 대학원장인데, 맥이 세검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멀다보니 새벽에 일찍 회의하러 오셔야 하니깐, 일대 여관에서 주무 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절인데, 그때는 학생관계 쪽으로 할 얘기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시러 다녔고, 고생을 하니깐 문교부에서 외국에 1년 다녀오라고 했는데, 제일 편하기로는 다시 프라이부르크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배 학장님이 “최 교수는 날개를 두 개 달아야 해”라고 하시면서 미국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가려고 토플시험을 봤는데, 2번이나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버클리로 갔죠. 가서 보니깐 내가 가보고 싶던 미국이 이런 곳인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가을하늘을 보니깐 서울에서 최루탄 가스 마셨던 것을 한 10분 확확 내뿔었어요. 날씨 좋지,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학생처럼 지냈는데, 교수들이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라고 같이 식사하자 하면 만나서 겨우 샌드위치 먹으러 가더라

고요. (일동 : 웃음) 보니까 독일교수하고는 천양지차더라고요. 그리고 버클리 특징적인 것이 go-west movement라고 끝까지 금 찾으러 서부로 갔다가 금문교에서 빠져 죽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자들도 버클리로 모여서 한스 켈젠을 포함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많아요. 독일에서 온 교수들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영어 반 독일어 반 섞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젊은 학자가 와서 독일어로 얘기하니깐 나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만 있고 질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보더라도 양은 많은데 맛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부는 좀 다들까 싶어서 하버드를 가겠다고 했더니, 한창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이 얘기될 때인데, 버클리 교수들이 “거기 왜 갈려고 하느냐, 청소년 범죄집단(juvenile delinquency) 같은 곳에 뭐하려고 가느냐” 묻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겨울에 하버드로 옮기면서 나는 사실 뭘 연구해 보고 싶다가보다 도 대체 하버드는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보는 대로 생각했다가 돌아와서 쓴 책이 『하버드 스토리』인데, 내가 생각해도 단시간 것처럼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경험을 갖고 미국을 보니까 대조도 되고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하버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비판적으로 썼더니, 그때 반응이 참 대단했어요. 팬레터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하버드 교수 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은 역시 큰 나라이고, 내가 독일서 공부해서 학위 받았다 말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근데 참 우연히 보크(Derek Bok) 총장을 알게 됐어요. 졸업식 예배에서 나온 그를 따라가 인사하며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깐 참 좋아하더군요. 미국은 역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나라다, 자기가 주장하면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후에 영어를 톤 덕에 뜻밖에 산타클라라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하더라고요. ‘East Asian Jurisprudence’라는 과목과 ‘Korean Law’를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독일하고 비교되는 것이, 독일은 30년가량 관계를 해도 항상 손님으로 핵심에 끼어들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먼저 요청이 오더라고요. 한 학기 가르치고 나니깐, 영어로 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들었어요. 당시 아무런 자료도 없었는데, 학교에서 한국계 조교학생을 한 명 붙여주어서, 매주 수업 들어갈 때마다 서로 상의하면서 영어로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로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 〈동아시아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 사상〉

**한인섭** : ‘East Asian Jurisprudence’에서 ‘East Asia’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

**최종고** :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미국에서 한국법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10명 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일단 개설하고 한국을 좀 더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고, 나중에 유럽이 통합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다루면서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서울대 출판부에서 책으로 나올 때까지 8년 걸렸어요. 결국 서울대출판부에서 두 권의 영문저서를 내면서 국제적으로 학문활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 같은 것을 느끼며, 동시에 개척적인 보람도 느꼈어요. 나는 서울대가 진정 세계적 우수대학이 되려면 출판부에서 좋은 영문출판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영문출판위원회를 만들어 해보니 예산보다도 교수들이 좋은 원고를 내지 못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철우** : ‘East Asia’ 관련해서, 경북대에서 심포지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장중추(張中秋)라고 중국정법대 교수가 선생님 학설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보통법을 중화법계(中華法系)라고 하는 걸 봤고요, 일본학자들은 제도적 견지에서 “율령체계”라고 하기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최종고** : 예,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만, 법학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보통법’이라는 개념은 내가 맨 처음으로 반(半)은 발명, 반(半)은 발견한 개념이에요. 서양법제사에서는 보통법(*ius commune*)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과거개념 뿐만이 아니라, 유럽통합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재등장하였고, 그런 것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깐, 문득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보통법을 얘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자연스레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는 속으로 중화법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일본학자들은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른데...’ 하면서 난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최 교수가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3년 지나서 중국 상해에서 한중일

심포지엄을 하는데, 나는 사실 놀랐어요. 이마이 히로시(今井弘道)라고 법사회학적 관심을 가진 법철학교수가 대뜸 자기는 최종고 교수가 동아시아 보통법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를 이해해서 앞으로는 찬성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일본도 동아시아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생각하고, 그 개념을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그렇지만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 ‘법사학의 기초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배경으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따져봤어요. 이른바 ‘최테제(Choi-These)’가 시간이 지나니깐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더라고요.

**한인섭** : East Asian Jurisprudence라는 말이 국내에서 얼마나 울림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전통시대에는 중국법의 모습이 너무 크고요, 근대에는 서양법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East Asian Jurisprudence라는 공통분모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본, 중국 예를 드셨는데, 한국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지는지 내지 가질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최종고** : 아직은 그리 반향은 없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내가 독일 법사학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에서 기조발표를 했더니,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주목해서 듣던데, 그리고 난 이후에 크게 봐서 동아시아에서는 역시 민족주의에 의해서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유럽도 주춤하고 하니깐, 가야할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로서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학자라는 이정표는 갈 길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나,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 East Asian Jurisprudence라고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을 단위로 한 개념도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요. 재작년 인도의 구자라트법과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인도의 ‘자비의 법철학’(jurisprudence of compassion)에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인도를 넣어 Asian Jurisprudence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금식** : “동아시아 보통법”이라는 것이 아마도 한국법학자가 한 말 중에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개념일걸요?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이철우** : 저는 순수하게 학문적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가 왜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만들 때 공통성의 기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중국법이 전파되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종의 중국법 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하고, 동시에 유교적 사상이 공통적 에토스를 이루었다는 것하고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도구로서 동아시아 보통법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고** :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법학이 실천성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인문학 쪽에서 얘기하는 동아시아담론을 들어보면 흥미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논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은 끝도 없죠. 그렇지만 법학자는 역시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재작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첫 번째 연구비를 받아서 『동아시아 보통법』이라고 보고서로, 일본 사람들 4명이 만든 ‘동아시아 공동체 헌장’을 번역하고, 영문본을 기초로 한글본을 만들었어요. 다른 분야보다는 법학분야가 뒤늦게 따라가고 소극적이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선입견이기도 한데, 사실 유럽통합에서 제일 중심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법률가들이거든요. 법학자들이 여러 군데 연구소를 만들어 토론하고, 보통법(*ius commune*)을 기초로 작업을 하는 것을 갈 때마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안했더니 동의하면서도 만약 연구를 만든다면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끌어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실천력이 따라가지 않아서 몇 년째 중단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깐, 그것까지 하려면 내 몸을 다 바쳐야 되겠더라고요. 권오승 교수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를 한다고 해서 그 쪽 과제로 넘겼죠.

### 〈인물에 대한 관심〉

**한인섭** : 독일, 외국, 아시아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딱딱한 이론이나 조직이 아니라, 법과 종교와 인간, 인물, 전기, 인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매우 즐거워하시고. 초창기에는 김홍섭 법관, 라드브루흐는 수 십 년 동안 계속 등장하고, 그 다음에 괴테가 어느 시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산, 이렇게 이어지고, 한국의 법률가, 법조인을 하시고, 이런 류의 작업이 전체 쓰신 책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그때 접했던 인물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것을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최종고** : 법사상사라는 것이, 자유, 정의, 평등 같은 개념 중심으로, 예를 들면 ‘History of Ideas’,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피는 것도 매력적이고, 더 심도 있는 연구라고 알면서도, 일단은 나는 사람이 상황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보니 사상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법사상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법률가, 사상가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드브루흐를 추적하다보니깐 그 뒤에 괴테가 서있고, 괴테의 법사상, 법률가로서의 괴테 같은 것을 『법학』지에 싣기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학신문』 기자가 정년퇴임 인터뷰 하고나서 나한테 ‘한국의 괴테’같은 느낌이 든다고 썼길래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런 말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직 독일대사 자이트(H. Seidt) 박사는 역대 독일 대사 중에 제일 한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한국말도 잘했는데, 내가 쓴 『So schön ist Freiburg (아름다워라 프라이부르크)』라는 시화집을 하나 쫓더니, 이분이 제 팬이 되었어요. 켈러(G. Koehler) 대통령이 라고, 한국에 왔다가서 한 달 만에 갑자기 그만 둔 분이 있는데, 내외가 한국에 오셔서, 나한테 그 책 좀 달라고 해서 서명해서 드렸더니, 자이트 대사가 나를 ‘한국의 괴테’라고 대통령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웃음) 이건 여담인데 매달 ‘괴테를 사랑하는 모임’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열 명 정도 모이는데, 독문학자 모임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식사하고 그래요. 아주 즐겁고 재밌어요. 아마 한국에서 괴테를 단순히 『파우스트』의 저자, 문학가로만의 괴테가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괴테, 화가로서의 괴테를 알린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한인섭** : 라드브루흐에 대한 사랑이 괴테로 넘어간 거군요?

**최종고** :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드브루흐 뒤에는 괴테가 서있다는 것을 나도 늦게 발견했어요. 괴테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양문화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부적인 주제만을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죠.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괴테의 전체 모습을 보니까 장점이 있죠. 특히 괴테연구는 독일어를 좀 하면 엄청 쉽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해 놓은 것이 워낙 많으니까요. 괴테 사전, 어록 등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산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경에 가면, 괴테 기념관이 있어요. 한 기업가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괴테관련 문헌을 엄청 수집해 놔는데, 그게 알려져서 독일정부로부터 최고 훈장도 받았어요. 4층짜리 건물인데 역시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구나 생각했지요. 괴테는 인간 중의 인간,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에 항상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지요.

**이철우 :** 계몽적 이성보다는 낭만주의 계통에 좀 더 친숙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종고 :** 천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껏 이성과 감정, 논리와 정서 사이에서 갈등해 왔어요. 디케와 뮤즈를 동시에 짝사랑한다 할까요?

**이철우 :** 아시아에 대한 재발견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에 대한 탐구가, 독일철학계보에서는 낭만주의 계통 쪽하고 통할 수 있으니까요.

**한인섭 :** 괴테와 다산은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최종고 :** 그것은, 우리 학교 안경환 교수가 학장일 때 다산연구가 박석무 선생한테 한 번 강연을 부탁했는데, 그 분이 얘기하시다, “다산이 살 때 아마 서양에는 괴테라는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라고 잠깐 언급하는데, 그 순간에 ‘아차! 저거다’ 싶더라고요. 괴테야 말로 무궁무진한 얘기를 끌어낼 수 있고, 다산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두 분이 1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호형호제’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동시대인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조선에 살았다는 그 사실을 주목해서 파고들어갔죠. 『괴테와 다산, 통하다』라는 책이 꽤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법학을 넘어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괴테와 다산을 사표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는 마음이 지금도 제일 강합니다.

**한인섭** : 박석무 씨는 그 한마디만 한 것이죠? 두 사람이 유사하다 같은 것도 얘기 했나요?

**최종고** :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는 괴테에 대해 미리 좀 알고 있었으니깐, 불이 붙었던 거죠. 두 사람의 어록을 열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문서관, 역사관, 인간관, 법률관, 미술관, 음악관, 국제관 등으로 비교했죠. 두 사람이 언급 안 한 것이 없으니까요, ‘비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쉬워요. 그래서 그 책을 냈더니, 그건 너무 학술적이니깐 두 사람의 생애도 넣자고 해서, 비교적 관점에서 썼더니 책이 재밌게 나왔어요. ‘괴테와 다산과 법’이란 전시도 법대 역사관에서 언젠가는 해야 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교수들 반응은 어떨까 하고 오래 망설 였는데, 정상조 학장이 같은 정(丁)씨고, 정해창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도 같은 정씨고 해서 아주 쉽게 추진했지요. 서울법대에서 이런 전시를 한 것은 정말 뜻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시기간 중 내내 괴테와 다산 사이에 선 내 사진이 서울대 홈페이지에 실려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 〈귀중문서실 설치경위〉

**한인섭** : 우리 법대 귀중문서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그 전에도 각종 자료,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고 계셨습니까? 귀중문서실을 만들게 된 경위가 어떤가요?

**최종고** : 내가 하버드에 88년 봄에 가서 Treasure Room이라고 보니깐 킨(Keen) 교수의 아이디어로 문에 다가 “In Old Fields Grow New Corns.”(오랜 들판에서 새로운 곡식이 자란다), 한국식으로 하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이런 표어를 붙여 놓았길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깐, 홈즈(O. W. Holmes)하고 중국의 존 우(John C. H. Wu, 吳經熊)하고 둘이서 주고받은 편지가 원본으로 백 여 통 이상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니깐, ‘진짜 연구라는 것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한국의 대학 도서관은 전부 출간한 책들만 있어서, 대학차원의 아카이브를 만들어야겠다’해서 ‘귀중문서실’이라고, 처음에는 방이 없으니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김중환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당신이 쓰시던 출석부, 개인 사진들을 주시고, 또 전봉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사』를 쓰시고 나서 변협관련 자료 모은 것을 3박스를 주시면서 “나 미국 들어가니 최 교수가 보관하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니깐 내 개인연구실에 두기 아깝다 해서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뒤 『동아일보』에 크게 기사가 나서, 현암사 조상원 현암 선생이 노구에 비서를 데리고 오셔서 내 손을 잡으면서 “원래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요” 하면서 현암사에서 낸 법전 초간본들을 기증해주셔서 참 힘을 얻었어요. 그 후에 공간이 너무 작다고 해서 안경환 학장이 늘려주기도 하고, 역사관으로 된 것은 로스쿨이 되면서 도서관을 새로 지으니깐 뜻밖의 계기로 되었어요. 사실 역사관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고, 도서관 소속으로 되어있으니깐 위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어중간하고, 나는 그냥 기초만 놓는다는 기분으로 물려주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교수들이 힘을 모아 잘 운영해주기 바래요.

#### 〈취미생활 : 詩作과 그림그리기〉

**한인섭** : 선생님이 어릴 때 동시(童詩)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반기 이후에 시(詩)를 계속 쓰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가 점묘로 시작해서 채색펜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법상징화 쪽으로도 가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시는데, 문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한국의 법률가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것인가요?

**최종고** : 취미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 거예요. ‘아마추어리즘’, ‘딜레탄티즘’이라는 것이 학자 입장에서는 금기시되기도 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법률가는 감정의 안정을 코에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일동 : 웃음) 그래서 법사상사라고 하는 어중간한 학문을 전공이라고 하면서 서울법대에서만 가능한 여건들 때문에 다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한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분대로 하고 싶었고 자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詩)는 동시(童詩)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시절을 지나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품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고 닮고 하나의 작품으로 정제된 것을 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안했어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을 적고, 그걸 굳이 피테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Gelegenheitsdichtung’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opportunity poetry’, 우리말로로는 ‘기회시’, 그때 그냥 쓰는 거예요. 괴테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괴테가 좋은 시를 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게 오래 계속되다보니 습관이 되어 여행갈 때 빈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그 순간에 시를 쓰고, 요즘은 돌아와서 컴퓨터로 다시 쳐서 그때 그때마다 만난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림은 내가 『법과 미술』이라는 책을 시공사에서 출판했고, 『법상징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대우재단에서 남이 안 하는 연구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연구비를 받아서 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들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갔더니 미술사를 전공하는 한 학생이, 지금 방송대 교수가 됐는데, “선생님, 미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암만 그렇게 해봐야 직접 그려보지 않으면 반도 이해 못하고 재미를 모르는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찡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지금이라도 당장 연필 하나 사서 보이는 대로 그려보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오기(傲氣)로 시작해봤죠. 처음에는 어떻게 그리는 줄도 모르니깐, 화가였던 괴테를 따라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괴테는 화가이기도 했어요. 괴테 화집이 10권이 있거든요, 평생 2,700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9살 때부터 돌아가신 해인 83세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괴테가 한 말 중에 “사람은 많이 쓰기보다도 많이 그려야 한다”고 해서, 괴테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깐, 괴테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 그림하고 괴테 그림하고 조금 비슷해요.

**정금식** : 그 전에 그리신 적은 없고요?

**최종고** : 네. 초등학교 때 정도.

**이철우** : 아 정말요? 저도 선생님 그림 보고, 굉장히 소질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그리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종고** : 처음에는 색연필로 채색하겠다는 생각도 안하고, 빈 공책에 싸인펜으로 20~30분 정도 그리고, 또 환갑 때 용기 좋게도 그렇게 그린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좀 더 해보라고 해서 색연필로 그렸고, 하와이 가서는 바다를 암만 연필로 그려봐야 질감이 안 나오는데 붓으로 한번 그려보면 바다가

잘 나오고 해서 수채화를 시작해보기도 했어요. 매년 수유리로 법대 동창회에서 등산가는 모임에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 해서, 버스에 앉았는데, 백운대가 보이길래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해서 『낙산회보』에 쏘여요. 그걸 보고 대한상사중재연구원 원장도 하신 배기민 선배님이 전화로, “최 교수도 그림을 그리시요?” 하시길래 “저는 그냥 흥내만 냅니다”라고 답했더니 “나도 원장직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전시회 한번 합시다”라고 하셔서, 말로는 “좋지요” 했는데, 2년 동안 해외로 바쁘다 보니 진도가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배 원장님이 초조해 하시면서 “나 생전에 전시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며, 염인섭이라고 화우회 회장말은 선배가 유화를 잘 그리는데 연결이 돼서 법대 화우회를 만들어서 2011년에 첫 전시회를 여니까 3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부 큼직한 작품들을 내는데, 나는 조그만 그림 내봐야 전시장에서는 별로거든. 시청 앞 가면 초상화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초상화를 그려봐야겠다 싶어서 두 달 정도 가서 배웠어요. 파스텔로 라드브루흐하고 유기천 총장 초상화 두 점을 그렸어요. 금년에도 전시회가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철우 :** 제가 보기에 최 교수님은 예술적 감수성이 남다르셨던 같아요.

**최종고 :**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즐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남들이 혼자, 난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니깐, 거창하게 ‘고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즐기는 것이 몸에 익었어요. 거기에다 시(詩), 그림, 이런 것을 하니깐 정신적으로 아주 바쁘지요. 보고, 쓰고, 그리고 하니깐. 송상현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일종의 역마살 같은 Wanderlust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하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 〈정년소감과 장래계획〉

**한인섭 :**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정년 이후의 계획, 하고 싶으신 일, 가고 싶으신 곳이나, 쓰고 싶으신 글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종고 :** 대개 보니깐, 정년하신 교수들은 두 타입이 있는데, 자기가 전공한 영역을

더 심화시켜서 완성시키려는 분들이 있고, 전공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분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법과 관련된 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기회가 있으면 글도 쓸 수 있겠고, 70세 때까지는 강의도 나오고, 또 ‘법과 윤리’ 부분은 계속 하고 싶고, 그 정도예요. 솔직히 정년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설계해보니깐, 역시 ‘한국인물전기학회’, 이걸 13년 전에 내가 만들어서 ‘독재’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군요. 만들 당시 존경하는 한 선배가 말하기를,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적 절차로 운영하면 당신 일찍 죽는다. 소규모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오래 끌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보다 어찌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매달 월례발표회를 90회가량했고, 그 사이에 몇 군데 장소를 빌려서, 최근에는 혜화동 한무숙 여류 소설가의택 한옥에서 하기도 하고, 몇 번은 이철우 교수 부친이 제공한 우당기념관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살다보면 연(緣)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적인 교수님이 대단히 근검절약하시면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한 30년 전에 과천에 땅을 한 천 평 사셨어요.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지고 계시던 중에, 거기에 기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한국인물전기문학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황 교수님이 시설을 만들어주시고 나보고 운영해보라고 하셨어요. 나도 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고마운데, 한 천 평되니깐 꽃나무도 심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도 했는데, ‘도서관’은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문학관’이라고 했어요. 전철 타면 금방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말되면 거기 가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교수가 좋은 점은 정년이 되어도 그런 일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계획은 없어요. 나는 자유인이니깐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이번에 정년하면서 헤아려보니 책 70여권 외에 학술논문 220편, 일반 논문 및 단문, 그리고 강연을 440편 정도 발표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었던냐 하는 생각도 들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의미있게 보람되게 살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과 희망, 설레임,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심정을 느끼고 있어요, 어디 정론이 있겠어요? 점점 삶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금식** :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최종고** : 우리 법대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나보다도 더 깊이 상세하게, 나는 박이부정(博而不精)이라는 말이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은 그리지만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는 것을 못했는데, 후학들이 잘하는 것 보고 역시 한 발자국씩 더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인간을 많이 얘기하고, 법과 윤리, 윤리적인 측면 이런 얘기를 하니깐,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평생 편안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았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점점 더 모든 분야에서 경쟁도 심해지고 하니깐, 나의 ‘낭만끼’ 같은 것이 구현되기가 힘든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로스쿨도 내가 있을 때 보다는 많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다만 한 가지 당부는 이수성 선생님이 늘 그러시듯 법대인들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인섭** : 저희들이 들어보니깐, 제대로 들으려면 50시간은 들어야 하는데, 한 네 시간 반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동** :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종고** : 수고들 많이 했어요.

